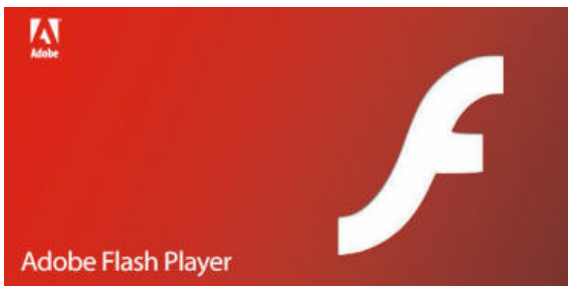
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, 내년부터 지원 종료



▲ 사진=shuttersto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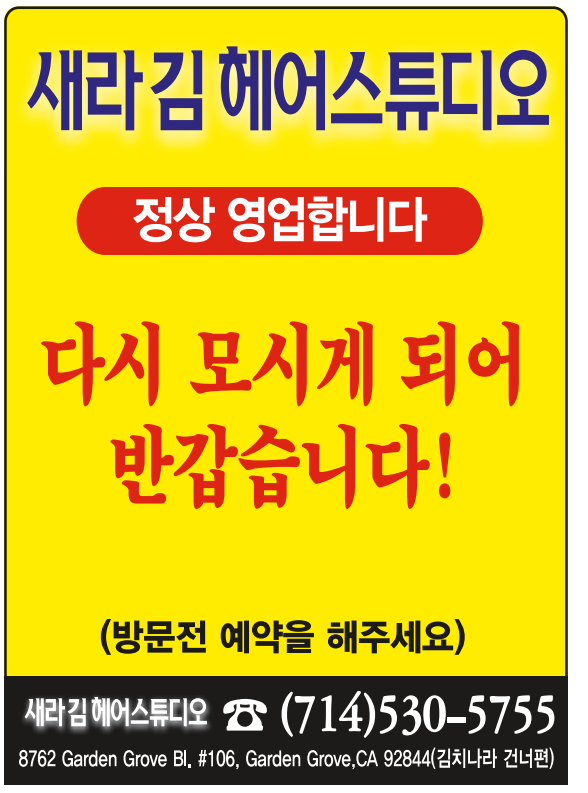
해킹에 취약한 플래시 플레이어를 올해 12월31일까지만 지원할 예정인 어도비가 그 때까지 PC에 설치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. 어도비가 더이상 플래시 플레이어에 대한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, 이용자가 PC에 플래시 프로그램을 남겨 둘 경우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.

어도비는 지원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,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도 삭제했다. 어도비는 "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운영기간이 지나면 플래시 기반 콘텐츠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" 이라며 "내년부터 플래시 플레이어 코드에 일명 '타임폭탄' 을 추가할 계획" 이라고 설명했다.

이에 브라우저와 운영체제(OS) 개발업체들은 플래시 지원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. 크롬, 엣지, 사파리, 파이어폭스 등 주요 웹브라우저은 내년부터 플래시 지원을 중단한다. 애플은 지난 2010년부터 맥OS에서 어도비 플러그인 지원을 중단하고, 지난 2016년부터 플래시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했다.

어도비는 지난 2017년 7월 플래시 플레이어의 업데이트 및 배포를 2020년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.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는 그동안 독립 소프트웨어가 아닌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해커들의 침입에 취약한 편이었다. 해커가 사용자 PC에 잠입하는 경로로 사용돼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또다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악순환이 수년간 반복됐다. 실제로 플래시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통해 랜섬웨어가 유포되는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.

지난 몇 년간 HTML5나 웹GL 같은 공개 표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플래시의 기능을 웹 표준 기술만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. HTML5는 지난 2014년 10월 웹 표준으로 확정된 웹 개발 기술로, 기존 HTML이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로만 표시할 수 있던 것과 달리, 멀티미디어 재생, 위치 정보나 카메라 등 하드웨어 기능 제어, 그래픽 기능 등을 외부 소프트웨어(액티브X, 플래시 플레이어 등) 도움 없이 웹 브라우저에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플래시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편한 기술이지만,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안 위협 노출, 플래시 플레이어 미설치 시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편함이 많은 기술이다.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역시 기술지원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 HTML5 등 웹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에 갖추고 있는 콘텐츠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.

사실 서비스 제공 기업이 HTML5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,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. 따라서 사용자 역시 웹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통해 HTML5를 문제 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가령,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HTML5 수용도가 낮아 이러한 콘텐츠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려운 반면, 크롬, 엣지, 오페라, 파이어폭스 등의 최신 버전은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높아 HTML5 기능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. 현재 자신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버전과 HMTL5 수용도는 HTML5 지원센터(html5test.com)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. 사용자 역시 웹 브라우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.